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184호 【루계 제24597호】 주체103(2014)년 7월 3일 (목요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영원한 인민의 태양으로 천만년 길이 모시리

지난 20년간 연 1억 7천여만명이 수령영생의 빛발 찬란한 만수대언덕에 올라 경모의 정 표시, 근 28만상의 꽃바구니 진정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신 때로부터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세월이 두번이나 이 땅우에 흘렀지만 우리 인민은 어느 하루한시도 수령님 계시지 않는 조국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 하많은 날과 달 만수대언덕으로는 더욱더 사무쳐오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영생축원의 마음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

하늘같이 믿고 살던 어버이장군님을 잃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된 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대성인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고 주체101(201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정중히 모시였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성스러운 언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함께 모심으로써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께 생전에 동상 하나 세워드리지 못하였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드디여 실현되게 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연 1억 7천여만명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만수대언덕에 올라 뜨거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근 28만상의 영생축원의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이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심이 세월이 흐를수록 얼마나 강렬해지고있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충정의 마음을 담아 만수대언덕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정중히 모시였습니다.》

주체83(1994)년 7월 8일, 이날 온 겨레를 안고, 전인류를 안고 그처럼 거세차게 맥박치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 태양이 꺼지고 지구가 가벼워진 인류력사에서 가장 비통한 날이였다. 7일 새벽에도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활달한 필체로

《김 일 성
1994. 7. 7.》

이라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저녁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고 그밤만은 부디 집무를 삼가해주실것을 간청하는 일군들에게 내가 일손을 놓으면 최고사령관에게 그만큼 부담을 더 주게 될것이라고, 김정일동지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혼자 걸머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있는가고, 나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 걸 보면 잠시도 쉴수가 없다고 하시며 천천히 집무실문을 열고 들어가시였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말씀,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이였다.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은 억수로 비가 쏟아져내리는 만수대언덕에 올라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를 가다듬었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고 언덕을 내리군 하였다. 그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나라의 곳곳에서 큰 변이 날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슴벅찬 희열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올라 어버이수령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리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온 나라가 또다시 피눈물의 바다에 잠기였다.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비통한 곡성이 만수대언덕에서도 낮에 밤을 이어 끝없이 울리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받아안으며 행복만을 누려오면서도 그이의 동상 하나 모시지 못한 뼈저리는 죄책감으로 가슴을 쳤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위대한 나라, 불패의 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업적을 온 세상에 길이 빛내이려는 절절한 념원과 충정의 마음을 담아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정중히 모시였다.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짐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세위인들의 축복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세계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과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도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게 되였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모셔진 때로부터 현재까지 2년 남짓한 기간 근 2 000만명에 달하는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이곳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수령영생의 숭고한 화폭으로 빛나는 만수대언덕에 오른 외국인들은 끝없이 물결치는 충정의 대하를 바라보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주체101(2012)년 12월 만수대언덕을 찾은 어느 한 나라 대표단단장은 우리는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여기 만수대언덕에 모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의 동상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대결작이다, 오늘 일요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리사업을 하는것을 보니 조선인민이 간직한 자기 수령들에 대한 숭배심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만수대언덕에 올랐던 중국 단동의 한 공사직원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의 동상이 정말 훌륭하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현지지도를 하시다가 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나는 비통한감을 누를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두분의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생전의 모습으로 훌륭히 모시도록 하시였다니 그이의 위대하고도 높으신 충의심에 머리가 숙어지게 된다라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을 찾는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기나긴 세월 인간이 당할수 있는 모진 슬픔과 피로움을 다 겪으시면서도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시였으며 팔순이 넘은 고령에도 인민을 위해 공장과 농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수령님의 인민위한 한평생을 되새겨보며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적시고있다.

또한 그들은 야전복차림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해 10여년나마 입으시여 얇아진 야전솜옷차림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전초선들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던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만수대언덕에 오른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만수대언덕을 찾는 외국의 벗들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경건히 우러르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며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승승장구해가고있는 조선의 휘황찬란한 앞날에 대하여 격조높이 이야기하고있다. 지난 20년간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흠모심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외국인들의 수는 4만 4 000여개 단체에 47만여명에 달하고있다.

만수대언덕과 더불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폭이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만수대언덕에 올라 동상주변관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관리사업에 필요한 수많은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이런 열화같은 충정에 의하여 만수대언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성스러운 수령영생의 언덕으로 보다 숭엄하게 꾸려지고있다.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심을 안고 만수대언덕을 끊임없이 찾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언제나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실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명훈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오늘의 하루를 고결한 충정으로

유훈관철에로 추동하는 당조직정치사업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드높은 영농실적으로 빛내일 일념으로 농업전선의 당조직들이 끓고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험한 포전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자욱이 어려있는 연백벌에서 당조직들이 대중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배천군 수원리당위원회와 연안군 오현리당위원회를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 8월말 몸소 현지지도하신 농장들의 당조직에서는 현지지도사적내용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강서구역 청산리당위원회에서는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체득시켜 그들이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를 안고 영농전투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고있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당조직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 방송선전차에 의한 선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농장벌들이 수령님의 유훈관철의 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내용들이 대중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리고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보여주는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들은 대중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회고음악회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형굴착기를 비롯한 기계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단위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과 수령님께서 석탄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령도업적을 잘 알고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들에서는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화선식 정치사업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된 자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자대중을 주체비료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도록 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불길은 수산부문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한천수산사업소 당조직을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서해안의 수산사업소당조직들에서는 정치사업의 무대를 어로공들이 일하는 바다한복판으로 정하고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이곳 당일군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어로공들과 함께 그물도 끌어올리고 침식도 같이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이게 해설해주고있다.

문덕수산사업소 당조직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어로공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수령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맞으며 올해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때로부터 공장을 수많이 찾으시면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당조직에서는 주체67(1978)년 11월 10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공장을 찾으시여 믿음직한 식료가공기지로 전변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주면서 종업원들을 대고조진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곡산공장, 박천견직공장 당조직들에서도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오늘의 대고조실천으로 빛내여나가도록 당정치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의 송풍기적역할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고있다.

한영철

상반년계획 빛나게 수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전자공업성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전자공업성에서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지의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줄 배전반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평양조명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전자기구생산을 힘있게 다그쳤다.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안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이바지할 각종 전자제품생산을 크게 늘이였으며 전자제품개발회사에서도 증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맡겨진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다.

평성자동화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풍력발전기를 생산하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전자공업성과 채취기계공업지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지도국아래 각지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년초부터 높은 생산장성이 기록되는 속에 뽐프와 착암기, 전차, 적재기, 전동기를 비롯한 중요지표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동림광산기계공장에서 집단적혁신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료, 자재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현행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성능이 높은 적재기생산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회령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북부지구의 여러 탄광들에 나가 그곳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채취기계설비생산을 늘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동림전기공장, 장산전기공장의 로동계급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면서 매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지표별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안주뽐프공장, 전천착암기공장을 비롯한 지도국아래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줄기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본사기자 류성국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해방의 은인, 민족의 전설적영웅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조선인민군 련합부대이상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총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8월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기계화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5월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6월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11월

갱도작업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2월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4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6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7월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8월

건당, 건국, 건군의 길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 천만년 전해가리

영원히 잊지 말자, 만경대갈림길!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7월이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들속에 계실것입니다.》

한평생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

이 나라 방방곡곡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자욱과 더불어 전하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돌이켜보느라면 못 잊을 만경대갈림길이 우렷이 안겨온다.

주체34(1945)년 10월 9일 새 조국건설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떠나신 길에 만경대의 갈림길에서 조용히 차를 멈추시였다. 차에서 내리시여 고향집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그이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지척에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넘고 헤치시던 나날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는 고향집과 달밝은 밀영의 밤 우등불가에서 《사향가》를 부르며 그리시던 조부모님들이 계시였다. 만경대갈림길에서 우리 수령님 하시던 말씀이 오늘도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저기가 바로 만경대요.

…20년만에 보는 고향이군.

…들어가면 늙으신 조부모님이 계실것이요. 내 인사를 전해주오. …

아, 얼마나 그립고 가고싶던 고향이였고 얼마나 만나뵈옵고싶으셨던 조부모님들이였던가!

못 잊은 고향이였지만 그 시각 우리 수령님께서는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고향 만경대를 지나시였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크실수록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혁명전우들의 념원을 이 땅에 꽃피워야 할 자신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시였고 락후한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일떠세우는데 철이 많아야 한다는것을 절감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바로 그때문이였다.

고향을 눈앞에 두시고도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신 우리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력사의 이 갈림길은 다 말해주고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없던 그 세월 가슴에 피멍이 든 로동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으시고 이제는 동무들이 조국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아갈 새 조선의 기둥, 주추돌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파괴된 제강소복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강선제강소 (당시) 의 로동계급은 민주건국사업에서 선봉대가 되라고, 그래서 제강소를 나라의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야금공업기지의 하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복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안고 수십일동안에 전기로를 복구하여 쇠물을 뽑아 건국위업수행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혁명의 년대기마다 끊임없이 이어지며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언제나 만경대의 갈림길을 심장에 안고 투쟁해온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강철기둥을 억세게 다져왔다.

6만t공칭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판을 밀어냈고 19만t의 능력을 가진 제철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30만~40만t능력의 용광로를 일떠세워 강철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열려진 고향집 사립문을 지척에 두시고 지나가신 만경대의 뜻깊은 갈림길이 있어 자립의 강철기둥이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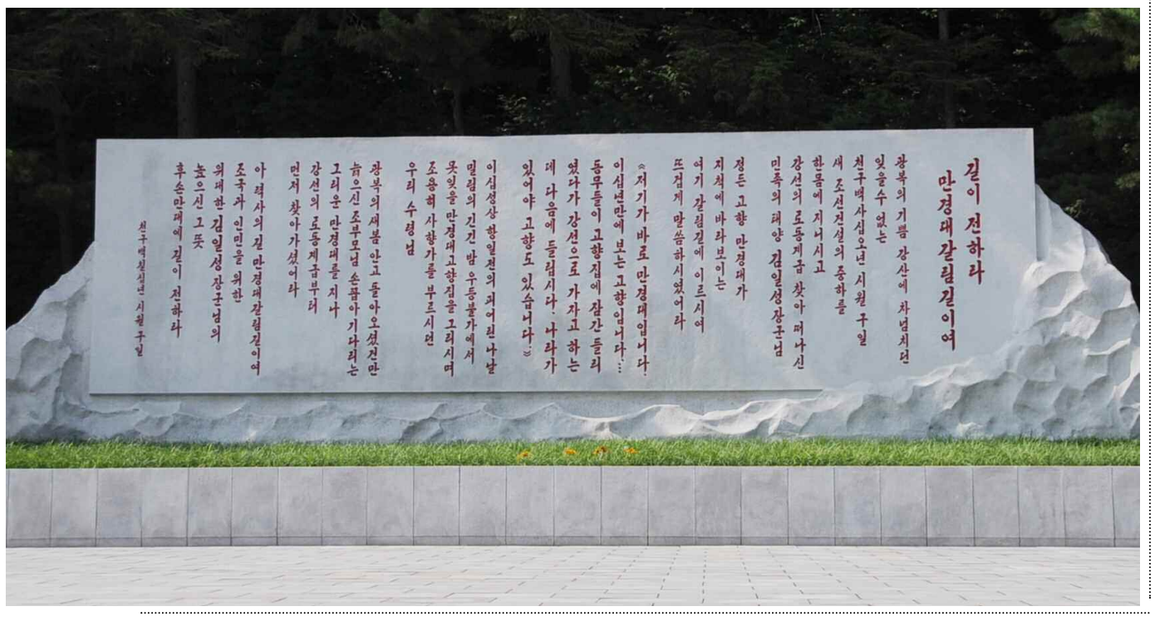
이 땅에 수놓아진 위대한 변혁의 력사의 갈피마다에 금속공업의 발전과 잇닿아있지 않는 부문이 없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천리마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질풍같이 내달렸던 사회주의공업화시기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뜨락또르와 자동차, 《붉은기》호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졌으며 8m타닝반과 3000t프레스, 대형굴착기, 불도젤이 쌍쌍 생산되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였다.

강성국가건설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도 바로 이 길에서 시작된것이 아니겠는가.

정녕 그리운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 강선을 먼저 찾으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전하는 만경대의 갈림길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기틀을 마련해준 력사의 길이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선군조선의 희망찬 앞길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가 이 력사의 길우에 뜨겁게 어려 빛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 성 삼
사진 본사기자 림 학 락



건설동지사와 10월 10일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은 우리 당의 력사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뜨거운 감회를 불러일으키며 떠오르는것이 잊을수 없는 첫 당조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당이다.》

건설동지사!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시대와 력사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서하던 첫 당원들의 열정넘친 모습이 우렷이 떠오른다.

당은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력사의 이 진리를 통찰하시고 전인미답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며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일찌기 《ㅌ.ㄷ》의 그날로부터 주체의 사상과 정신을 혁명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불멸의 넋으로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위업이였다.

당창건의 원칙과 그 방식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였고 령도핵심의 준비, 군중적지반의 축성에서도 고전에 없는 새로운 길을 탐구하시였으며 끊임없는 사색과 혁명실천속에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들을 정립하시고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7월 3일 카륜의 진영학교 교실에서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였다. 그리고 첫 당조직의 이름을 건설동지사라고 지으시였다.

건설동지사라는 명칭에는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시였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포부와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기성리론에 대한 사대와 교조, 큰 나라 당에 대한 의존과 추종, 집권욕에 가득찬자들의 파쟁과 암투가 절정에 이르고있던 그때 이제 겨우 투쟁의 첫걸음마를 뗀 10여명의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혁명적당조직을 내온다는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의 정치적 기적이였으며 10대의 젊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의 사상과 령도력, 인덕의 일대 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던 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탄생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였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의 령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였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은 이때부터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첫 당조직이 결성된 얼마후에는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성원들로 국내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되였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여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지도하게 됨으로써 우리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체계는 더욱 정연하게 확립되게 되였다. 간고한 항일혈전의 나날에 이룩된 이런 고귀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에 조국이 해방된 후 두달도 못되던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이 창건되는 력사적사변도 이룩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령도밑에 건설동지사로부터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심각한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었고 제국주의강적들의 도전을 짓부실수 있었으며 오늘도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면서 승리만을 떨칠수 있는것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

우리 인민이 류례없이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빛을 뿌리고있다.

전 광 남

첫 국기게양의 력사적순간

공화국의 창건을 두달 앞둔 주체37(1948)년 7월 10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령도자를 기록하고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는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하에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할데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토론에 이어 헌법실시에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이어 애국가가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우리의 공화국기가 게양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기발이 처음으로 게양되는 참으로 격동적인 순간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이날의 력사적사변에 대하여 당시 《로동신문》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력사적인 신국기게양은 12시 15분 총기림한 만장의 열광적환호와 장엄한 애국가주악리에 … 진행되였다.

박수와 환호는 감격에 비등된 장내를 오래동안 뒤흔들었다.

조선민족의 무한한 행복과 발전을 상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의 국기는 단상에 찬연히 빛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얼마나 많은 사연을 전해주고있는가.

건국의 나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의 국기에 담아야 할 사상적내용과 그 표현방도까지 가르쳐주시며 공화국기를 훌륭히 완성시켜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국기의 붉은색은 항일선렬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이 흘린 피와 공화국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상징하는것으로 된다고, 국기의 흰색은 우리 나라가 한강토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결백하게 살아온 단일민족국가라는것을 상징하며 푸른색은 민주주의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씩씩한 모습과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수 있다고.

정녕 피어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며 찾은 우리 조국의 자랑찬 력사와 빛나는 전통, 억센 기상과 영예가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이 어려있는 저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에 다 비껴있는것 아닌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세기의 하늘높이 띄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공화국기발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여 더 높이 휘날린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을 위한 연회 마련

【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을 위하여 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련방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 왈레리 할릴로브가 인솔하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성원들 그리고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와 무관이 초대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군악단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렴철성룩군중장, 오금철 항공군상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전통적인 조로친선을 시위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친히 축하를 보내주시고 연회도 의의있게 차려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연설한 왈레리 할릴로브 군악국장과 안드레이 니쩬바움 군악단 지휘자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을 친히 초청해주시고 조선을 방문하는 전기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였다.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성원들은 조선을 방문하면서 조선과 로씨야는 정치, 군사분야에서뿐아니라 문화분야에서도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으며 두 나라 군대들의 군악을 발전시키는것이 로조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로조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로조친선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의 주요지휘성원들과 배우들을 만났다

【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2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 왈레리 할릴로브가 인솔하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의 주요지휘성원들과 배우들을 만났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렴철성룩군중장과 인민무력부 일군들, 상대측에서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쎄르게이 두릐긴단장을 비롯한 주요지휘성원들과 배우들 그리고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와 무관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훌륭한 공연활동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해주고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한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에 보내신 축하를 황병서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황병서동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인연을 중시하고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한다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번에 시간이 바빠 공연을 보아주지 못하고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성원들을 만나주지 못하였는데 후에 군악단성원들이 다 와도 좋고 지휘성원들만 와도 좋으니 우리 나라에 꼭 휴양을 하러 오라고 몸소 초청하신데 대해 말하였다.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성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지닌 조직성과 규률성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을 친히 초청해주시고 공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군악단 전체 성원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줄것을 진심으로 부탁하였다.

건군사를 전하는 한상의 사진

강병은 부국의 기초라는 말이 있다. 부강한 나라는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강한 군대를 키우는것이 조국수호와 평화의 근본전제라고 볼때 불패의 강군을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야말로 백두산대국의 오늘을 담보하여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적인 군건설사상을 제시하고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보위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십니다.》

한상의 사진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든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이 땅에 조국해방의 봄을 안아오시고 우리 군대를 현대적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자주독립국가 인민의 영예와 존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제1중앙군관학교 제2기 졸업식에 참가하신 사진문헌이다.

환호하는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답례를 보내시는 우리 수령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일찌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백두의 수림속에서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바로 그때부터였다.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된것은.

총대중시의 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무력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신것 아니던가.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졸업생들의 끌끌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머리를 수그리시였다.

그날의 못 잊을 사연을 추억깊이 더듬으시며 언제인가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1948년 10월 14일 제1중앙군관학교 제2기 졸업식에 수령님과 어머님과 함께 나도 참가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어머님은 머리를 수그리고있는데 그것은 울고계시였기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어머님께 왜 우시는가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이렇게 끌끌한 우리 군관대렬을 보니 항일혁명투쟁시기가 생각나고 먼저 간 혁명동지들이 생각나서 그런다고 하시였습니다. …

한평생을 다 바쳐 우리의 혁명무력을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으로 이 땅의 7월은 불덩이마냥 달아오른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어떻게 오늘처럼 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었는가.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온다.

백두산총대의 력사, 백두밀림에서 붉은기와 함께 굽이쳐온 승리의 력사를 어느분이 개척하셨는가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길이 칭송할것이다.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20세기 군사적기적을 창조한 군대를 어떤 령장이 건설하시고 이끌었는가를 건군의 력사, 강군의 년대기들은 후손만대에 전해갈것이다.

항일의 전설적영웅,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시여 수난많던 이 땅에는 강군의 력사가 시작되였고 자위의 성새우에서 인민은 강성번영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집단적경쟁열풍속에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7월에 들어와 외벽타일붙이기공사 빠른 속도로 추진, 구획도로 및 걸음길로반조성 결속, 내부미장공사 85% 돌파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전변되여가고있다.

외벽타일작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여러가지 색타일로 구색이 맞게 단장되고있다. 여러 시공단위들에서 벽체미장, 천정미장을 끝낸데 이어 문틀설치, 장식미장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는 가운데 공사장적으로 내부미장공사량의 85%계선을 돌파하였다. 구획도로와 걸음길의 로반조성도 결속되였으며 살림집과 도로주변에 느티나무, 평양단풍나무, 향오동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천백여그루의 나무들이 이미 뿌리를 내리였다. 공사장구획밖의 여기저기에서는 완공의 그날 푸른 주단을 펼치게 될 새 품종의 잔디들이 시공단위별로 경쟁이나 하듯 파릇파릇 돋아나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선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는 척후대, 개척자들입니다.》

불과 넉달전까지만 하여도 전혀 상상할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현실이 이곳 은정과학지구의 드넓은 부지에 펼쳐지고있다. 단 7개월사이에 우리 과학자들을 위한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달려온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이 활화산처럼 분출하여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지난 3월 5일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한달도 못되는 3월말까지 공사장적으로 백수십만㎡의 성토 및 절토공사와 연 1만 7 600여m의 하부망공사가 진행되여 상부구조건설에 앞서 구획내의 모든 하부망공사를 결속짓는 대상건설에서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4월과 5월 본격적인 건물지상골조전투에 총진입한 각 시공단위들에서는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하였다. 하여 건군절을 앞두고 9, 10호동살림집골조가 제일먼저 완공된데 이어 4월말까지 3개의 호동이 련이어 결승테프를 끊었다.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는 치렬한 경쟁속에 5월말까지 당앞에 결의다진 구획내 골조공사를 빛나게 결속하는 전례없는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 6월 19일현지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전체 건설자들은 지금 공사장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살림집들의 외부를 여러가지 색타일로 구색이 맞게 처리하기 위한 새 설계에 따라 각 시공단위들에서는 6월말부터 일제히 외벽타일붙이기공사에 달라붙었다. 외벽타일붙이기공사를 끝내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건 군인들은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7월에 들어와 공사속도를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있다.

현장지휘부적인 작전에 따라 각 시공단위들에서는 내부미장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차게 내밀면서 동시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자래를 완전히 드러낸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2014년 6월 30일 찍음)

건설초기의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2014년 3월 19일 찍음)

천년책임, 만년보증은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는 혁명군대의 량심의 언약

△ 기적창조의 열쇠는 대중의 정신력발동 ▽

외벽타일붙이기를 비롯한 건축공사와 구획도로, 걸음길조성, 나무심기를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질제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물질문화생활에서 날로 높아지고있는 인민들의 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질적비약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접령하자면 결정적으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7월 제품질제고대책월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질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제품질제고대책월간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판점과 일본새에서부터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면한 생산의 량적장성에만 치우치면서 제품의 질을 소홀히 하는것이야말로 시대발전에 뒤떨어진 근시안적인 태도이며 주체의 인민관이 바로서있지 않은 표현이다.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경쟁은 중요하게 제품의 질경쟁이며 우리 인민들이 쓰고살 모든 생산물과 건설물은 마땅히 그 질에 있어서 최상의것이여야 한다. 제품질제고대책월간에 맞게 각급 경제지도기관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모든 생산자대중이 질제고가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후손만대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그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제품질제고대책월간에 실현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우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 실속있게 집행해나가야 한다. 제품질제고대책월간사업이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여 적당히 굼떠려 할것이 아니라 당정책적요구로 받아들이고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의 모든 공정들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제정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시공기준과 건설공법들을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과학적인 품질관리질서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고 질에 대한 총화평가사업을 어김없이 진행하며 규격화,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모든 제품을 정해진 규격대로만 생산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낡고 뒤떨어진 설비나 기술을 가지고서는 제품의 질적요구를 보장할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제품경쟁에서 이길수 없다. 제품질제고대책월간에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설비와 생산공정, 제품포장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쳐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설계작성을 콤퓨터화하고 현대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 최신식공법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우리의 자원에 기초하여 견고하면서도 시대적미감에 맞는 질좋은 건재들을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과 건설을 전문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제품질제고대책월간에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며 사회주의생산문화를 바로세우고 가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적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품질감독체계와 건설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품질검사를 현대화하며 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꽃피워갈 일념안고

평양양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평양양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심장깊이 새기고 질좋은 양말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분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들을 다량생산하며 특히 기초식품과 1차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101(2012)년 7월, 사회주의조국의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도록 하시려 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평양양말공장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에 찾아오시였던 잊지 못할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말공장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관심은 특별하시였다고, 공장생산능력이 확장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누구보다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녀자양말직장과 새로 꾸려진 남자양말직장 등을 돌아보시며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장에 어려있는 어버이장군님의 로고를 잊지 말고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여 더 질좋고 더 많은 양말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자기들이 만든 양말을 몸소 늘구어보시면서 그 질도 가늠하시고 포장작업모습도 자세히 보아주시며 뜨거운 은정을 안겨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공장종업원들은 격정을 터뜨리였으며 맡겨진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질좋은 양말을 더 많이 만들어 우리 인민들이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안도록 하자!

일군들도 종업원들도 오직 이 하나의 열망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증산과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공장을 현대적인 양말생산기지로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새겨주며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공기조화설비에 설치한 물랭각기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준비직장과 완성직장, 남자양말직장 등 여러 공정에 능력이 큰 수십대의 배풍설비를 받아들여 종업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매주 설비점검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였다. 월말마다 주요설비들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보수를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 이와 함께 원료, 자재와 동력보장사업에 힘을 넣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양말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녀자양말직장과 남자양말직장이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조건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대들에 정통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이들은 기술기능전습과 기술학습에 성실히 참가하여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고 기능공, 고급기능공대렬을 훨씬 늘이였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여러가지 부속품들과 장치들을 제작도입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준비직장에서는 종전의 속도조종체계를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설비가동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1년 남짓한 사이에 공장적으로 50여건의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새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자금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제품실수률을 3%이상이나 더 높이는 자랑을 떨치였다. 뿐만아니라 콤퓨터통합생산체계수립의 단계별목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주요생산단위들의 제직공정에 대한 자동감시체계가 새로 수립되고 구내콤퓨터망도 손색없이 꾸려지였다.

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올해에 월별, 분기별, 지표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고 상반년계획을 현물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며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세계적추세에 맞는 갖가지 고운 색갈과 문양의 양말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매주 새로운 제품형태도안합평회와 매달 2차의 제품품평회를 실속있게 조직하였으며 백화점을 비롯한 상업망들에 정상적으로 나가 주민들의 수요와 반영을 세밀히 조사하고 제때에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벌리면서 양말의 색갈과 문양을 더욱 개선해나가고있다.

기술과에서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도안 70개를 비롯하여 무늬도안 200여개를 심의등록할수 있게 하였으며 확대품종수를 늘이고 정확한 원료분석과 염색의 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양말생산의 질과 량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갔다.

공장에서는 해당 부문,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체육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종류의 운동기양말을 조선사람의 체질과 운동종목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평양국제축구학교와 전국의 수많은 체육단, 과외체육단위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색갈곱고 질기며 값 또한 눅은 갖가지 《철쭉》상표 양말들은 지난 6월에 진행된 제8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한 평양양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양말생산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뽈럭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 참가하고 아프리카, 아랍나라들을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귀국

【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알제리의 알좌자이르에서 진행된 뽈럭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 참가하고 아프리카, 아랍나라들을 방문하였던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과 장본량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마중하였다.

막장의 착실한 살림군

2.8직동청년탄광 3갱 채탄3중대 김정선동무는 누가 보건말건 깊은 지하막장에서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석탄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수십년전 스스로 채탄막장에 뿌리내린 그는 오늘까지 채탄공으로 일하면서 채탄설비들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여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는 석탄속에 간혹 섞여나오는 동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석탄생산에 효과있게 리용하고있다.

하루작업이 끝난 후 석탄무지속에서 찾아내여 모아들인 동발들을 선별하는 그를 보며 소대장을 비롯한 채탄공들은 막장의 착실한 살림군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때마다 김정선동무는 비록 이미 막장에 세워졌던것이라도 이렇게 쓸모있게 리용하면 그만큼 동발나무가 절약되고 석탄산은 더욱 높아지지 않겠는가고 이르군 한다.

이런 애국의 마음을 지닌 김정선동무이기에 언젠가 막장에 내려쌓인 돌들을 까내여 묻혀있던 많은 석탄을 모조리 끌어냈다. 그리하여 많은 발파용자재들을 절약하면서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한없는 그리움과 충정으로 흘러온 스무해의 낮과 밤들

7월의 밤에 나누는 이야기

깊어가는 7월의 밤 수도의 창전거리에 불빛이 흐른다. 이 밤이 지새도록 집집에서는 그무슨 이야기 끝없이 나누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른 아침 우리 집에 불쑥 오시였구나. 세간난 딸을 찾아오신듯 허물없이 집안에 들어서시는 수령님께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였단다.

—쇠물꽃보라가 날리는 용해장에 오시여 우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음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구나.

…

수령님 생각이 더더욱 사무쳐오는 7월의 이 밤 그이를 그리고 흠모하는 인민의 절절한 심장의 토로는 웅장화려한 수도의 거리만이 아닌 이름없는 산골과 외진 섬마을의 작은 창가에서도 쉬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을 위해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이 어려있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회주의시책 하나하나에도 인민을 위해 쏟고쏟으신 그이의 사색과 심혈이 깃들어있기에 한밤을 새워도 다하지 못할 하많은 수령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인민은 장장 스무해를 살아왔다. 그 이야기속에서 수령님의 따뜻한 체취, 후더운 숨결을 심장가까이 느끼였다.

정녕 불밝은 집집에 불멸의 태양상이 환히 빛나고 인민의 생활속에 수령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였거니 우리 어찌 한시인들 그이와 떨어져 살았다고 할수 있으랴.

수령님 생각으로 깊어가는 이 밤 수도의 창전거리만이 아닌 온 나라 방방곡곡에 높이 솟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는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드릴없는 생활의 진리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금잉어를 기르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새벽닭이 홰를 치는 소리와 함께 먼동이 희붐히 밝아온다. 집집의 창가들에서 하나둘 불빛이 새여나오고 가정주부들이 울리는 가락맞는 칼도마소리가 청신한 아침공기를 헤가른다.

그러나 해주시 새거리동 10인민반의 어느 한 집에서는 칼도마소리보다 먼저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금잉어들이 어떻소?》

창문턱에 놓여있는 화분들에 물을 주던 오현철동무가 금잉어들에게 먹이를 주고있는 안해 최진순동무에게 묻는 말이다.

《물온도랑 다 맞춤해요.》

물탕크에서 꼬리치는 금잉어들을 즐겁게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여올랐다. 이런 아침을 맞고보내기를 수십년, 마을사람들은 오현철동무의 가정을 가리켜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정답게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28년전 만경대혁명사적지주변의 못가에 오래도록 서있는 처녀가 있었다. 평양견학을 왔던 최진순동무였다. 못에서 뛰노는 금잉어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문득 이런 생각이 움터났다.

(이 못에 더 많은 금잉어들이 뛰놀게 되면 만경대혁명사적지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할수 있지 않을가.)

그로부터 얼마후 최진순동무는 금잉어원천을 찾기 위해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재령땅에서 금잉어원천을 찾아내였을 때 그의 기쁨은 형언할수 없었다.

하지만 금잉어들을 기르는것이 더 문제였다. 물고기기르기에서는 생둥이나 다름없는 그였던것이다.

최진순동무는 물고기에게 좋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밤잠을 잊고 뛰여다녔고 물고기기르기에 필요한 지식들도 하나하나 습득했다.

그해에 그는 정성껏 키운 200여마리의 금잉어들을 만경대혁명사적지주변의 못에 놓아주었다.

금잉어를 기르는 처녀에 대한 소문이 한입두입건너 퍼져갔다.

최진순동무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된 한 청년이 서로의 마음을 합치자며 찾아왔다. 그가 바로 오현철동무였다.

그들은 새 가정을 이루었고 금잉어를 기를 물탕크도 크게 다시 만들었다.

어느날 새끼금잉어들을 구해가지고 돌아온 최진순동무는 마을녀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첫돌을 갓 넘긴 딸이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다는것이였다. 그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입원실에 들어서니 딸은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자고있었다.

《금잉어들을 가져오느라 수고가 많았겠구나. 현순이는 일없다. 글쎄 그 애를 살리겠다고 의사, 간호원들이…》

결에 다가온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눈굽을 찍었다. 시어머니의 눈물섞인 목소리를 최진순동무는 꿈속에서처럼 들었다. 현순이를 살리기 위해 의사, 간호원들이 피까지 뽑아 수혈해주고 밤을 꼬박 지새우며 치료전투를 벌린 이야기를,

고마운 이 제도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 최진순동무의 가슴속을 꽉 채웠다.

오현철동무와 최진순동무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실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금잉어들을 기르는데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그렇게 날이 흐르고 해가 바뀌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정성껏 키운 수천마리의 금잉어들을 만경대혁명사적지주변못과 금수산태양궁전앞에 놓아주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훌륭히 꾸리는데 모든것을 바쳐갈 충정의 맹세를 담아 최진순동무가 올린 편지도 몸소 보아주시였다.

그들은 오늘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마음을 안고 금잉어들을 기르고있다.

금잉어와 더불어 흘러가는 한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충정의 일편단심을 본다.

본사기자 조 경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굴지의 마그네사이트광물생산기지인 룡양광산의 광부들이 수십년전 몸소 광산을 찾으시여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투쟁의 하루하루를 광물증산성과로 빛내이고있다.

얼마전 룡양광산 금산갱의 굴진공들이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가고있던 이른아침이였다. 막장입구쪽에서 난데없이 안전등불빛이 비쳐지는것과 함께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들일가?)

굴진공들이 미처 의문을 풀새도 없이 불빛의 주인공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뜻밖에도 굴진공들의 안해들이였다.

《오늘은 우리도 소대의 한 성원이니 버럭운반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런데 〈공짜〉로 소대에 받아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준비해가지고온 지원물자를 굴진공들에게 안겨주었다. 소대장 리만곤동무가 안해들을 향해 짐짓 엄하게 말했다.

《모두들 여기서 나가주오.》

그러자 안해들이 버럭운반이야 어디 막장일인가고 이구동성으로 들이대는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여무지게 울렸다.

《전쟁때 줄폭탄이 쏟아지는 고지우로 포탄상자를 메고 오른것이 누구들이였나요?

후방사업은 우리가 다 맡을테니 그저 기관총련발사격처럼 착암기를 냅다 돌리기만 해주세요.》

순간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날 광물증산을 위해 마음쓰는 안해들의 진정에 고무된 채준1소대 전투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하루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1소대뿐이 아니였다.

채준4소대에서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던 그날 저녁 막장을 돌아보던 소대장 방윤길동무의 눈에 한 굴진공의 얼굴이 띄였다.

《아니, 병원에서 벌써 돌아왔소?》

그 굴진공을 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병원으로 떠나보낸것이 불과 얼마전인지라 소대장의 놀라움은 클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소대장에게 굴진공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하였다.

《이제 머지않아 7월이 아닙니까. 병원에 그냥 앉아있자니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를 벌리는 소대원들이 자꾸 생각나…》

그의 말에 굴진공들은 뜨거운 것을 삼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진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것, 이것은 갱장 박춘봉동무를 비롯한 룡양광산 금산갱 전체 광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각오였다.

다음교대의 생산준비를 스스로 맡아 해제끼며 막장조건이 불리한 다른 소대의 몫까지 합쳐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한 윤경호, 홍수영동무를 비롯한 채광1소대 전투원들, 이들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막장의 위험개소돌파를 단 8시간만에 해제끼는데 크게 기여한 박명현, 조인철동무를 비롯한 동발공들…

백금산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꽃피워갈 한마음으로 지하막장마다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며.

본사기자 리 남 호

사랑의 배길우에 새겨진 인민의 모습

신의주—비단섬행 려객선 3298호를 타고

동승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산을 봐도 들을 봐도 어버이수령님 생각이 더욱 사무쳐오는 7월을 앞둔 어느날 우리는 신의주—비단섬행 려객선 3298호에 올랐다.

려객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객실들로 서둘러 향하는 바람에 우리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사방이 탁 트이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흘러드는 갑판우의 객실로 갈것인가 아니면 은근한 정취를 자아낸다는 선저객실부터 먼저 갈것인가.

이때 출항종이 울렸다.

려객선 3298호는 눈부신 해빛을 풀어안고 거울처럼 번쩍이는 압록강물결우로 천천히 미끄러져갔다.

그바람에 우리는 좀전의 망설임을 까맣게 잊고 배전의 란간을 잡으며 늠실늠실 퍼져가는 수면우에 눈길을 던졌다.

배고동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러자 앞에서 가던 다른 배도 붕—하고 고동을 울려 화답하였다.

우리가 웬 배인가 하여 건너다보는데 곁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유람선 〈민흥 433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와장군님께서 56년전에 몸소 오르셨던 배입니다.》

목소리의 임자는 선장 김종규동무였다.

《그때에는 비단섬으로 가는 려객선이 저 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을 때에는 려객들이 하루나마 기다렸다가 다음번 배를 리용하군 하였습니다. 바로 저 배에 오르시여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배를 한번 더 띄워서라도 목는 손님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선장은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이 무은 멋진 려객선을 두척이나 보내주시였다고, 그리하여 마력이 좋전배의 두배나 되는 그 려객선들이 비단섬을 향하여 달리게 되고 《민흥 433호》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과 노래를 싣고 압록강물결을 헤가르는 유람선으로 되였다고 감동깊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멀어져가는 《민흥 433호》를 뜨거운 마음으로 바래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더 넓게 열어주신 배길을 따라 려객선 3298호는 사랑의 꽃배마냥 두둥실 떠갔다.

선장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선저객실에 들리였다.

거기에 자리잡은 려객들은 비단섬에서 신의주로 나들이왔던 사람들이 태반이였다.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아들을 축하하러 나왔댔다던 로인부부며 농장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 걸음을 하였다는 중년녀성, 력사박물관참관을 하고 간다는 학생들…

비단섬사람들의 생활은 이 려객선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었다.

한 대학생청년은 이 려객선 3298호를 타고 대학에 입학하러 갔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랑의 배길을 열어주시여 물과 떨어져 외롭던 우리 비단섬이 거창한 세계와 련결되고 날로 더욱 흥하는 조국의 몇몇 없는 한 부분으로 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려객선이야말로 행복의 요람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우리는 갑판우의 객실로 향하였다.

거기에 오르니 거대한 폭을 안고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의 모습이 더욱 장관이였다.

려객선을 따라 휘갈기를 일구며 사품쳐오는 압록강의 거세찬 물결,

그것은 마치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아름답게 꽃펴난 비단섬사람들의 행복하고 보람넘친 생활마냥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저 멀리에 비단섬이 보일무렵 우리는 달려온 배길을 뒤돌아보았다.

물우에 새겨진 자욱은 씻은듯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환히 보였다.

사랑의 배길우에 꽃피는 행복과 더불어 언제나 어버이수령님 생각에 눈굽적시고 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모습이.

본사기자 허 명 숙

그 어느 포전에 가보아도

문덕군 룡중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고있다.》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문덕군 룡중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농장을 찾으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진할줄 모르는 열정과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영농전투를 과감히 벌려왔다.

모내기전투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였다. 긴장한 영농전투로 모두가 어지간히 지치였다.

이때 제4작업반 포전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자, 동무들, 우리 다같이 노래를 부르는것이 어떠요?》

5분조장이 분조원들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였다.

못 잊을 그리움에 포전길 걸을 때면
가슴에 안겨오는 수령님 그 모습
…

그가 격정을 안고 옌 선창에 하나둘 소리가 합쳐지더니 모두의 합창으로 번져졌다.

저도모르게 못 잊을 그리움에 휩싸이는 얼굴들…

그 어느 포전, 그 어느 분조를 둘러봐도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을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를 다그쳤다.

제7작업반원들을 비롯한 농장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맹세를 안고 앞그루작물가을걷이와 뒤그루작물심기를 다그칠 때 수리분조원들은 양수동력설비들에 대한 수리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푸르른 농장포전마다에는 정녕 어버이수령님만을 그리며 한결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충정의 맹세가 세차게 굽이치고있었다.

본사기자 홍 성 철

백금산의 하루

룡양광산 금산갱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들일가?)

굴진공들이 미처 의문을 풀새도 없이 불빛의 주인공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뜻밖에도 굴진공들의 안해들이였다.

《오늘은 우리도 소대의 한 성원이니 버럭운반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런데 〈공짜〉로 소대에 받아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준비해가지고온 지원물자를 굴진공들에게 안겨주었다. 소대장 리만곤동무가 안해들을 향해 짐짓 엄하게 말했다.

《모두들 여기서 나가주오.》

그러자 안해들이 버럭운반이야 어디 막장일인가고 이구동성으로 들이대는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여무지게 울렸다.

《전쟁때 줄폭탄이 쏟아지는 고지우로 포탄상자를 메고 오른것이 누구들이였나요?

후방사업은 우리가 다 맡을테니 그저 기관총련발사격처럼 착암기를 냅다 돌리기만 해주세요.》

순간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날 광물증산을 위해 마음쓰는 안해들의 진정에 고무된 채준1소대 전투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하루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1소대뿐이 아니였다.

채준4소대에서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던 그날 저녁 막장을 돌아보던 소대장 방윤길동무의 눈에 한 굴진공의 얼굴이 띄였다.

《아니, 병원에서 벌써 돌아왔소?》

그 굴진공을 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병원으로 떠나보낸것이 불과 얼마전인지라 소대장의 놀라움은 클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소대장에게 굴진공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하였다.

《이제 머지않아 7월이 아닙니까. 병원에 그냥 앉아있자니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를 벌리는 소대원들이 자꾸 생각나…》

그의 말에 굴진공들은 뜨거운 것을 삼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진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것, 이것은 갱장 박춘봉동무를 비롯한 룡양광산 금산갱 전체 광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각오였다.

다음교대의 생산준비를 스스로 맡아 해제끼며 막장조건이 불리한 다른 소대의 몫까지 합쳐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한 윤경호, 홍수영동무를 비롯한 채광1소대 전투원들, 이들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막장의 위험개소돌파를 단 8시간만에 해제끼는데 크게 기여한 박명현, 조인철동무를 비롯한 동발공들…

백금산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꽃피워갈 한마음으로 지하막장마다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며.

본사기자 리 남 호

로당원들의 마음

평원군 원화리에서 사는 박원순, 장현철로인들

평원군 원화리에서 사는 로당원들인 박원순, 장현철로인들은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안고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주변판리사업을 정성다해 진행하고있다.

수십년전 농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박원순로인은 원화땅에 백두산위인들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신 때로부터 매일과 같이 그 주변판리사업을 잘해오고있다.

장현철로인 역시 모자이크벽화주변판리사업을 정성다해 진행하는것으로부터 아침일과를 시작하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자들과 함께 백두산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모자이크벽화주변판리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있는 로인들은 판리도구들도 품들여 마련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늘 자식들과 새세대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농장에 깃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영광의 땅 원화리를 더욱 풍요하게 가꾸어가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사람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삶을 빛내여가는 박원순, 장현철로인들을 두고 농장의 자랑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로농통신원 한 우 일

추억깊은 구호들과 력사의 증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령도자를 기록하고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는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현실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수많은 혁명적인 구호들을 제시하시고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우리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구호들은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뛰여난 정치실력을 말해주는 력사의 증견자로 되고있다.

혁명적구호는 명확한 투쟁목표와 방향, 과업과 방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전투적호소이다. 수령이 제시하는 구호들은 천만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는 원동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전투적기치로 되며 바로 그 구호들에 수령의 위인상이 비끼게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을 읽어보면 수령님께서 공청결성이후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면서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구호를 높이 드시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그때부터 그 구호는 자신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였다고 쓰시였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열린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다고,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호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구호이며 바로 여기에 태양이시라고밖에 달리 칭송할수 없는 수령님의 불세출의 위인상과 고귀한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ㄷ.ㄷ》에 뿌리를 둔 조선로동당은 오늘 전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강철의 전위대오로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위력에 대하여 되새길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9(1930)년 7월 3일 우리 당의 태아이고 씨앗이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시면서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건설사에 얼마나 크나큰 자욱으로 빛나는것인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확고한 자주신념, 투철한 선군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0(1931)년 12월 16일 연길현 명월구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연설하시면서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발발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녀성들은 물론 량심적인 자산가,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온 겨레와 민족을 항일전쟁에 총궐기시키는 힘있는 구호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중인민은 친밀히 련합하여 공동의 원쑤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굳건히 다지시였다. 그리고 항일전의 나날에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숭고한 국제주의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간고한 혈전의 길에서도 학습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유격대가 인민과의 혈연적뉴대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도록 하시였다.

남호두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 《조국에 무보를 뻗치고 군호를 올리자!》라는 가슴후련하고 기백에 넘친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해방된 조선의 첫봄을 증산으로 맞이하며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 《모든것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로!》…

이 구호들에는 건국의 초행길과 전화의 불비속, 전후의 시련을 꿋꿋이 헤쳐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이후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조성된 난국을 뚫고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탐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여 이 땅우에 세인을 놀래우는 천리마시대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전에 제시하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떠나 오늘 우리 경제가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발사하는 최첨단수준에 이른 자랑찬 현실을 생각할수 없다.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면서 제시하신 구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수많은 독창적인 구호들과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앞길을 또 얼마나 환히 밝혀주고있는가.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에 별빛마냥 찬란히 빛나는 추억깊은 구호들을 통하여 그 어떤 말과 글로도 다 칭송할수 없는 수령님의 불세출의 위인상을 뚜렷이 증언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석탄전선에 서있는 아버지와 아들

덕성탄광 로천갱 공훈탄부 김룡준동무와 5갱 갱장 김성일동무는 탄광이 자랑하는 부자탄부이다.

아버지 김룡준동무는 탄광개발자들중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48년동안 석탄증산으로 조국을 받들어온 공훈탄부이다.

김성일동무는 9년전 탄전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그때부터 굴진공시절을 거쳐 쇠소리나는 갱장으로 자라난 새 세대 탄부이다.

김성일동무는 로천갱 굴진소대장으로 일하던 자기에게 3갱의 석탄생산을 맡겨준 당의 신임과 기대를 명심하고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전개력, 뜨거운 인정미로 탄부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2년도 안되는 사이에 갱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단위로 추켜세웠다.

이런 그에게 당조직에서는 5갱 갱장사업을 맡겨주었다. 당의 믿음에 석탄증산실적으로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그는 굴진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운반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압축기의 막장이동전개와 작업굴진집중선행, 갱내운탄선개건 등 주도세밀한 전투조직과 능숙한 지휘로 갱적인 석탄생산실적을 쑥 끌어올렸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용의주도한 전투지휘로 하여 탄광적인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5갱은 올해에 들어와 달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고있다.

탄전개발의 그때처럼 석탄증산을 위해 아글타글하는 공훈탄부 김룡준동무와 전세대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이어받아 석탄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가는 김성일동무를 두고 탄광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혁명전우라고 불러주시며 뜨겁게 베풀어주신 사랑의 전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 꾸바녀성법률가였던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에게 돌려주신 은정

20세기를 대표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를 뜨거운 사랑으로 한품에 안으시고 반제자주위업을 위하여 온 생애를 깡그리 바치신 력사에 전무후무한 희세의 위인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십년전에 알게 된 꾸바의 한 녀성법률가를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잊지 않으시고 다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신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인민과 인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그이께서 지니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특출한 령도력으로 하여,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에 넘친 인품과 높은 덕망으로 하여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했던 존경과 흠모를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였습니다.》

1950년대 조선전쟁은 결코 이 땅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고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력량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렬강들, 그 추종세력들과의 전인류적인 대결전이였으며 전쟁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한 미제를 단죄하는 성토마당으로 온 지구를 화하게 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미제의 살인귀적만행을 규탄배격하는 광범위한 국제적운동의 시작은 그 계기가 있었다.

1951년 여름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이 압록강을 조용히 건너 조선땅에 들어섰다. 그들속에는 23살 난 나어린 꾸바처녀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도 있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꿈많은 처녀시절을 보내야 할 한창나이에 총포탄이 비발치는 조선땅에 그가 발을 들여놓은것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불의와 전쟁을 증오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반미반제전선의 한전호에 선 조선인민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미제의 죄행을 폭로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나선 그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 도착한 그는 즉시 미제의 온갖 비인간적이며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가 신의주와 안악, 신천 등 여러 곳을 돌아보며 조사한 미제의 치떨리는 범죄적행위에 대한 자료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통하여 유엔에 제출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반미반전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이 귀국을 며칠 앞둔 5월 27일 깐델라리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사단성원들을 접견해주시겠다는 소식에 접하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최고사령관이 귀중한 시간을 내여 우리들을 만나주시다니…)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폭격에 사고는 없었는가,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시고 국제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여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시였다.

깐델라리아가 23살의 처녀라는 것을 아신 수령님께서는 먼곳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케 왔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은 꾸바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은 반드시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될것이라고, 결코 미제의 식민지로 될수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호방한 웃음과 활기에 넘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깐델라리아는 승리한 조선의 래일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저도모르게 매혹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깐델라리아사이의 혈연적관계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포연속에서 이렇게 맺어졌다.

꾸바에 돌아간 그는 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천인공노할 만행과 페허로 된 조선의 현실을 폭로하는 도서 《내가 본 조선》과 《우리는 고발한다》를 출판발행하였다. 도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일떠선 영웅적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에 적극 기여하였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그이의 특출한 위인상과 풍모에 매혹된 깐델라리아는 그후에도 우리 나라를 여러차례 찾아왔다.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설수 없다고 하던 땅에서 천리마의 기적을 안아오며 세기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경탄의 마음이 스스럼없이 솟아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40여년세월이 흐른 주체82(1993)년 8월 건강이 허락된다면 깐델라리아를 우리 나라에 초청하도록 해주시였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희미해진다고 하지만 총포탄이 비발치던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과 깐델라리아사이에 맺어진 혈연적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조선방문초청을 받았다는 소식은 깐델라리아의 가슴을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줄기의 밀림처럼 설레이게 하였다. 수십년세월이 흘렀어도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몸소 불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의리심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깐델라리아는 그이께 올릴 선물을 정성껏 마련하였다. 하나하나의 선물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깃들었다. 몸은 대양건너 멀리 있어도 항상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리는 마음을 담아, 진보적인류는 언제나 조선을 지지하고 련대성을 보내며 미제를 반대규탄한다는 심정을 담아 품을 들여 준비하였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를 친히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40여년전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아, 깐델라리아, 23살의 처녀가 이렇게 됐구만, 이렇게 됐어라고 하시며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처음 만나시였을 때의 일을 하나하나 추억하시며 그동안의 생활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물어주시였다.

그가 소박한 선물로 조각품 《싼따 마리아》호와 책 《내가 본 조선》, 《우리는 고발한다》를 드렸을 때에는 그의 진정을 헤아리시고 《싼따 마리아》호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할 때 타고온 3척의 배들중의 하나라고 일군들에게 설명도 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는 년로보장이라니 아무때나 조선에 와서 쉬고가라고, 평양을 제 집처럼 여기고 자주 오라고 친어버이사랑을 거듭 부어주시였다.

인생말년에 보통외국인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받아안은 깐델라리아의 심정은 마치도 친어버이를 만난것만 같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날씨가 추워지는것을 념려하시여 자신의 명의로 모세타와 털신발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또한 우리 나라와 꾸바와의 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깐델라리아는 수령님께서 또다시 부르신다는 가슴벅찬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전달에도 만나주셨는데 또다시 나를 부르시다니…)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사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신 후 일군들에게 오늘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인사라고 거듭 평가하시면서 그가 혼자몸이니 꾸바에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것이라고, 그러니 설도 함께 쇠고 다음해 1월에 우리 나라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게 하도록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나라 체류기일을 더 연장하고 평양시안의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묘향산, 개성, 신의주 등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을 돌아보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이 어린 생활필수품과 남방과일까지 받아안았으니 기둥도시로 소문난 아바나의 건축물들과 빨마나무가로수들도 감복할 전무후무한 사랑의 전설이 아닐수 없었다.

주체82(1993)년 12월 21일 깐델라리아가 감격에 겨워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깐델라리아와 인사를 나누신 후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고 성대한 오찬회도 마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찬회에서 전승혁명사적관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의 활동정형을 찍은 사진에 깐델라리아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고 물으시였다. 얼마전 사적관을 돌아보던 그가 해당 일군에게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나가는 말을 한적이 있었다.

당시 그 사적관에는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사연을 일군들로부터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당 기관들에 깐델라리아의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 사진을 바꾸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깐델라리아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진심으로 도와준 혁명전우이라고, 그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깐델라리아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사랑은 끝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그에게 년하장도 몸소 보내주시였으며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1994년 새해설맞이모임에도 참석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깐델라리아는 혁명전우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대해같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을 조선의 딸, 수령님의 전우로 살리라 굳게 맹세다졌다.

그가 어버이수령님을 얼마나 흠모하고 따랐는가 하는것은 조선방문을 마치면서 자기의 가슴에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초상휘장을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우리 일군들에게 부탁한것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후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방문기 《40년만에 다시 본 조선》을 집필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받은 생일상》, 《떠날수 없는 마음》, 《지구는 깨뜨릴수 있어도》, 《조선속에 전세계가 있다》, 《권총을 들이대면 포를 내댈것이다》, 《높은 칭호, 고귀한 이름》 등 여러 제목의 글에서 조선방문기간 자기가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절세위인들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그가 쓴 도서는 조선어, 영어, 프랑스어, 중어, 로어, 일본어 등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출판되여 세계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그는 여러 계기들에 좌담회와 회견을 가지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에 대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에 대하여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이 과정에 깐델라리아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심이 더욱 가득차게 되였으며 그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을것 같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몇달전에 깐델라리아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가 우리 나라에 다시 와서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돌아보면서 휴식하도록 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깐델라리아는 1994년 5월말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되였다. 1994년 6월 3일은 깐델라리아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깐델라리아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넓은 홀에까지 친히 나오시여 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며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다시금 듣는 순간 깐델라리아는 헤여졌던 친부모를 다시 만나는듯 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꾸바의 령도자들이 모두 건강하여 일을 하고있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가는 일감이 생길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여야 한다고, 꾸바에 신발을 신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있는 좋은 말이라고 긍정해주시였다.

깐델라리아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는 도중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알아보시고 그동안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깐델라리아가 꾸바의 청년섬에 가서 공부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류학생모두를 자기의 손자로 여기고있다는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160여명의 손자가 있는셈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과분한 치하를 하시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이처럼 극진하게 환대해주어 정말 고맙다고 자기의 심정을 아뢰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구들끼리 돌봐주는것은 환대가 아니라 응당한 일이라고, 환대라는 말은 손님들과 외교를 할 때나 쓰지 전우들사이에는 쓰지 않는다고 이르시였다.

전우, 이 말은 생사를 같이하며 같이 싸운 동지들사이에 부르는 말이다.

전우로 불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정한 말씀에 그는 참으로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계속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지난해 우리 나라에 왔다가서 쓴 글을 보았는데 사실을 그대로 실감있게 잘 썼다고, 그 글은 문학가라고도 할수 있고 법률가라고도 할수 있는 사람이 쓴것과 같이 잘 썼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깐델라리아는 너무도 황송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책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사변적인 일들을 진실하게 서술하였을뿐이였다. 사실 도서의 분량이나 담고있는 사상주제적내용으로 볼 때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담은데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토록 분에 넘친 치하를 하여주시는것이였다.

깐델라리아는 어려움도 잊고 어버이수령님께 이제 돌아가면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지지해주시였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활적인 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며 지난해에는 겨울에 왔댔기때문에 지방에 많이 가보지 못하였을것이라고, 이번에는 마음놓고 휴식하면서 그때 보지 못한것들을 다 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번 기회에 백두산에 가보려고 한다는 깐델라리아의 말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지금은 좀 이르다고, 백두산에는 아직 눈이 적지 않게 있고 춥다고 하시면서 그의 건강을 념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해마다 여름철에는 우리 나라에 와서 휴식하고 겨울철에는 꾸바에서 휴식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깐델라리아를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은 그가 한생을 살면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뜨겁고 진실한것이였다. 진보적인류가 그처럼 흠모하고 따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국가정치가도 아니고 평범한 녀성법률가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그처럼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친어버이사랑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뜨거운 동지애였다.

일생에 거의나 눈물을 흘려본적이 없는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사랑에 종내 행복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참으로 깐델라리아를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진정은 끝이 없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깐델라리아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그의 손목에 친히 채워주시며 이것은 자신께서 로혁명가들에게 주는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점심식사도 마련해주시고 전우들끼리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은가고, 당신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차렸는데 음식을 많이 들어야 하겠다고 은정넘친 말씀도 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손수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앞에 놓아주기도 하시고 축배잔도 찧어주시였다.

국제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기 집에 온것처럼 생각하고 휴양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잘 지내라고, 생활하는데 제기되는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가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준비한 선물을 드리였을 때에는 오히려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며 나는 건강하니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우리 더 건강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자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로부터 한달후 평양의 한 숙소에서 도서집필에 전념하던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였다.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사실앞에서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만나주신지 불과 3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서거하시다니…)

그것이 정말인가고 열번, 스무번 곱씹어 물어본 그는 절통함을 금치 못하며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을 찾아 화환을 진정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 조의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또 닦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는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게 되였다는 비통함과 함께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더해만 갔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깐델라리아에게 돌려주시던 사랑과 은정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뜻밖에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조국해방기념일에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또한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깐델라리아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사랑의 보약들도 가슴한가득 안겨주시였다.

정녕 깐델라리아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생의 활력을 부어주신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시였다. 하기에 그는 귀국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의 심정을 담은 감사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그후 깐델라리아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심을 안고 자기집에 모신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놓은 수정꽃병에 매일 장미꽃 한송이를 어김없이 꽂아놓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돐이 되는 1997년 7월 8일에도 깐델라리아는 자기뿐만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진보적녀성들의 마음을 담아 붉은 장미와 순결의 상징인 백합꽃을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삼가 드리였다.

《주석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던 그 통곡의 7월 8일, 악몽과도 같던 그날이 정말로 꿈이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저에게는 주석님의 자애로운 모습과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그대로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습니다. 주석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석님은 영원히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십니다.》

외국의 한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한 자기에게 최상의 행복과 영광을 주신 절세위인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변함없이 간직해온 깐델라리아, 그후 그는 어버이수령님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책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집필하였다. 그는 책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인간사랑과 숭고한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쳐오신데 대하여 감동깊게 서술하였다.

깐델라리아는 자기의 한생에서 그 누구도 받아안을수 없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았다. 하기에 그는 로환으로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보내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그이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대성인이시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의 력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오늘도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자주시대의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오며 세월이 가고 대가 바뀔수록 반제자주위업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신경섭

단호한 결심, 우리 민족끼리립장의 발현

지난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발표하였다. 국방위원회는 특별제안에서 북남사이에 쌓여있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자주의 원칙에서 풀어나갈것과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며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을 제의하였다. 특별제안에는 어떻게 하나 꼬일대로 꼬인 불신과 대결의 매듭을 풀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진심과 애국애족적인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들어와 력사적인 신년사와 중대제안, 공개서한들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원칙적이고 아량있는 립장을 거듭 천명하였다. 이번 특별제안은 북남대결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단호한 결심과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대의 요구와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애국애족적제안이다.

북남관계개선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7.4공동성명발표 42돐을 계기로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에 채택된 모든 성명, 선언들과 합의를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할것을 온 겨레앞에 다시금 확약하는것은 관계개선의 출발점으로 된다. 자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주장아닌 《주장》, 선언아닌 《선언》들을 전면철회하고 동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공조체제를 전면철페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이상 민족의 귀중한 공동자산인 우리의 핵억제력과 병진로선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한 북남사이의 2월합의를 리행하는것으로 관계개선에 대한 립장과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북남합의를 순간에 리행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것은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핵전쟁위험을 막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외세와의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반공화국도발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근본요인이다.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전쟁불장난을 벌려놓을 필요가 없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방법으로 풀어나가자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취소와 서해열점지역에서의 도발행위들을 전면중지하는것으로 우리의 평화애호적제안에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제적조치들을 취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길이다.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생사존망은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의 성의와 아량이 어린 특별제안은 북남관계의 비정상적인 현 사태를 바로잡고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에 대한 편견과 불필요한 의심을 털어버려야 한다.

덮어놓고 의심만 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상대방이 내민 화해의 손을 맞잡고 서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신뢰도 생기게 되고 북남관계도 전진하게 된다. 북과 남이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를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걸음을 내짚어야 할 때는 바야흐로 다가왔다.

남조선당국은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명백한 립장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심 철 영

일본의 수치는 무엇인가

《일본인으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한 고령의 일본인이 했던 말이다. 과거 일제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에 대한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파렴치성에 대한 환멸이 비낀 말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의 진상이 세계적범위에서 전면적으로 발굴립증되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다.

그때 벌써 지각있고 량심적인 일본인들은 과거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수치를 느끼고 속죄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당시 일본기자 혼다 쇼이찌는 《빈곤한 정신, 유괴, 살인, 체포, 강간, 륜간—〈종군위안부〉의 실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기 정부의 비렬한 변명과 뻔뻔스러운 태도를 타매하면서 《일본정부가 이번에 보인 태도는 매번 해대는짓이기는 해도 아연실색할 파렴치하고 비렬한 반국제적인것이였다. 일본인은 이렇게 평장한 거짓말을 해대고 파렴치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놓을수 있는 민족이였단 말인가. 나도 이 민족에 속하는 일본인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하였다.

일본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있는것이 정상이다.

1993년에는 당시 일본내각관방장관이였던 고노가 정부적립장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구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죄의사를 표명하였으며 1995년에는 당시 수상 무라야마가 과거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비록 그것이 엄연한 력사적사실과 공정한 세계여론앞에서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된 처지로부터 마지못해 취한 극히 형식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과거죄악에 대해 어느 정도 죄의식을 느꼈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 죄악에 대해 수치를 느껴야 한다. 죄를 짓고도 낯색 하나 붉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뻔뻔스럽게 놀아대는것은 인간의 갖춤새가 아니다.

과거 일제의 피비린 침략력사와 야수적만행들은 그야말로 인류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였다.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론점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미 력사와 인류는 일본이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정의의 법적심판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적지 않은 극우익정객들과 반동세력들은 수치를 느낄 대신 자기 조상들의 반인륜적죄악을 부정하면서 더욱더 우경화에로 나아가고있다.

최근 일본은 고노담화검증결과라는것을 발표하여 과거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서나 회피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고노담화의 발표로 말하면 그래도 일본으로서는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수치를 조금이라도 씻고 개심의 길로 나갈수 있는 다행스러운 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검증이요 뭐요 하는것은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종당에는 고노담화를 부정하자는것이다. 이것이 고노담화검증결과라는것을 내놓은 일본정부의 진의도이다.

이로써 일본은 자체반성의 기회마저 차던졌다.

이것은 결국 앞으로 지난 세기의 침략력사를 재현시켜 반인륜적범죄를 또다시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범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는것은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길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이 살수 있는 자격을 제스스로 줴버리는 무모한짓이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일본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격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국제사회는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의 이른바 검증놀음은 력사를 똑바로 보지 않고 침략죄행의 진실을 가리우려는 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라고 규탄하고있다. 지어 손우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회의원들까지도 고노담화검증결과를 비판하는 련명서한을 일본정부에 보냈다.

일본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에 등을 돌려대지 말아야 하며 자기들의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일본이 과거범죄력사를 부정하는것은 도덕적저렬성과 사무라이적근성을 또다시 드러내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수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일본은 세계민심의 배척을 면할수 없으며 언제 가도 발편잠을 잘수 없다.

본사기자 리철혁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문제해결방도에 대해 언급

에짚트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가 6월 26일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문제의 해결방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아프리카가 평화, 안전분야에서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있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문제는 대륙나라들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것을 아프리카나라들에 호소하였다.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것을 호소

모리따니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가 6월 27일 제23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대륙나라들이 테로와 국경횡단범죄 등으로 시련을 겪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안정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프리카동맹 성원국들이 대륙의 사회적안정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무장장비를 잘 갖춘 신속반응무력을 내오기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스트랄리아에서 당국의 부당한 보건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ㄱ-41102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